

1.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0. 2. 20(목). 10:00~12:00 / 농특위 대회의실
- 참석 인원 : 24명
 - (TF 팀) 정은조 단장, 김종원, 민경택, 박미선, 배재수, 유영민, 이미라, 이학래, 이임영, 최무열위원 (10명)
 - (유관기관) 산림청 최서희·임창옥·손순철·윤종혁사무관/ 산림조합중앙회 장진구팀장외1, 임업진흥원 이승학외1, 복지진흥원 김영석실장외2 (11명)
 - (사무국)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, 곽은경사무관, 김진호비서 (3명)
- 주요 내용
 - 2019년 의결안건 ‘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’ 추진계획(산림청) 및 이행관리계획 보고(농특위)
 - 2020년 산림의제 ‘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’ 논의
 - 산림경영지원 기관별 역할 및 업무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
 - * 의제관련 정책에 대해 산림청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 추진
 - 산림분야 현안 공유 및 향후 계획(3월 현장 토론회*) 등 논의

2. 회의 결과

- (안건 1. 이행관리계획) 이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
- (중요과제 추진 공유) 산림청의 임업직불제 TF, 세제TF의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요망
- (산림경영률 제고) 산림경영률을 ‘30년 까지 90%로 높일 수 있도록 방법, 예산 등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
- (임업경영체 지원) 임업경영체(임업회사법인)에 대한 지원 확대 요망
- (산림일자리발전소) 주로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장의 임업인이 참여하기 어려우니 사업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 요망

- (안건 2. 의제 논의) 3개 기관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, 중복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여 3개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모색
- (산림조합중앙회)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서 역할 필요
 - 산림조합의 사업을 목적사업과 서비스사업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사업은 적극 지원 필요
 - 경영지도원의 역할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지도원 예산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의문임. 산림조합 경영비가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경영지도원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
 - 임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장기간 현장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담 경영지도원이 장기간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
 - 선도경영단지와 대리경영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 필요
 - 국산목재 활용을 목구조 건축물에만 집중하면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 대중이 선호하는 아파트 등 건축 내부를 목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
- (한국임업진흥원) 임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강화 필요
 -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. 신재생에너지, 바이오매스 분야가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분야 멘토 육성 필요
 - 임산물 생산·유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므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람
 - R&D 추진시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정서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 수행 요망
- (한국산림복지진흥원) 민간영역의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요망
 - 정부에서 직접 복지사업을 수행하면 민간영역의 산업이 육성되기 어려우니 정부는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하고 민간에 이양 필요
 - 녹색자금의 대상사업과 사용처가 목적에 맞는지 재검토 필요. 녹색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 고민 필요

3. 향후 추진계획

- 현장토론회 : 2020. 3. 24(화)로 잠정 결정하고, 토론 주제, 장소, 대상 등은 산림청 및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추후 결정